

유기농업운동에서 유기적 삶으로

-팔당상수원유역 생명살림운동의 사례-

김 병 수(팔당상수원 유기농업운동본부 초대 사무국장)

1.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의 설립 배경

1980년대 팔당유역은 수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불과 1시간 거리이고, 수도권 외곽의 휴양지로 개발되기에 유리한 아름다운 경치를 가졌음에도 여느 농촌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곳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삼각주 지역이어서 농지가 비옥하고 수도 서울의 동북부권 교통요충이어서 일찍부터 상업이 발전한 곳이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상수원 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해 1972년 팔당댐을 완공하고 팔당호가 만들어지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특별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신축은 물론 농가를 포함한 모든 건물의 증축, 개축이 불허되었고 공장, 축사, 음식점, 이발소 등 어떠한 사업도 허가되지 않았다. 오직 농업만이 가능했다. 한국 농촌이 몰락하면서 이곳도 예외가 아니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수도권 2천만명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 팔당호유역 10만 명의 생존권은 아무 보상 없이 무시됐다.

필자가 마을 신문(조안소식)을 통해 1989년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팔당유역 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지역민 99%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질문에 “팔당호가 빨리 오염돼 상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야 음식점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사실 팔당호는 이미 오염상황이 대단히 심각해져 있었다. 상류에서는 러브호텔, 음식점, 전원주택이란 이름으로 무차별 허가를 내주면서 호수 주변만 규제하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정책 때문이었다.

1989년부터 필자와 정상목, 권오균, 이준용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팔당상수원 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발한 활동을 한 결과 1996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보상정책을 끌어낼 수 있었다(주민지원사업비).

상수원보호정책으로 오랜 동안 개발이 억제되다 보니, 이후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유기농업을 확장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되었다.

2. 농민의 자주, 자립적 경제조직으로 출범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는 1995년 10월부터 준비하여 12월 22일에 정식 발족했다. 출범 후 불과 3년 만에 100여 농가를 회원으로 하고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기농업단체, 자주적 영농조합법인, 농촌공동체로 급성장하였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유기농본부의 태동은 1976년 두물머리농장에서 처음 씨앗이 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정상목(초대 본부장)을 중심으로 두물머리농장 가족들이 정농회(한국 최초의 정신적 유기농업 조직)에 가입하고 실천하면서 팔당에 유기농업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1987년에는 남양주시 송촌마을 김병수 등이 두물머리농장을 견학하면서 그 씨앗이 남양주까지 날아가게 됐다. 송촌마을에서는 이때

김병수를 중심으로 '한솔생명공동체'를 조직하여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YWCA 등과 직거래를 실천하면서 서서히 저변을 확대했다. 같은 시기 조안지역에 농협의 도움으로 한국유기농업협회 조안지회가 설립된 것도 팔당유역에서 유기농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정상목, 김병수 등은 유기농업의 안정된 성장과 농민들의 권익보호는 시장을 통하지 않는 자체 유통조직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믿고, 직거래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농림부, 농협중앙회, 환경부, 서울시 등 정책 당국의 유기농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병행했다.

당시만 해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 대부분은, 유기농업이 몇몇 이상주의자들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쯤으로 치부했다. 우리는 팔당호 수질을 보호하는데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요건이며, 유기농업은 상수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정책건의를 기회있을 때마다 하였다. 또한 팔당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과 투쟁을 병행했다.

마침내 1995년 농협중앙회와 서울시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주변 농가들을 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용자와 판매지원을 중심으로 한 팔당상수원 유역 환경농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환경농업 참여농가들이 확대되고 이에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양주시, 광주군, 양평군의 20여 선도적 유기농업 실천농가들이 모여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를 조직했다.

유기농본부의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서울시나 농협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가 있어야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유기농산물의 신뢰성을 농민 자율에 의해 지켜 나가기 위함이었다.

유기농본부는 회원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권익보호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시로부터 가락동 도매시장

에 있는 물류센터를 무상임대 받아 1996년 9월에 농민들의 출자를 바탕으로 전문유통회사를 설립하였다(주식회사 새농). 또한 생산된 유기농산물의 저장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기가공품 회사인 두물머리식품을 1996년 설립, 운영하고 있다. 2001년에는 덕소, 구리, 마석 등 인근 중소도시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팔당 생활협동조합을 조직해 소비자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였다.

2. 팔당생명살림연대 조직 및 활동 현황

1) 설립취지문

팔당지역은 자연, 지리적으로 최고의 혜택을 받은 고장이다. 그러나 오랜 제도, 법률적인 규제 조치로 경제적으로는 낙후되고 교육, 문화등 각 부문의 발달이 정체된 상태로 수십 년을 흘러왔다. 그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각계에 진정하는 등 노력을 한 결과 환경농업육성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팔당지역은 오랜 규제 조치로 인해 남한 제일의 청정지역이 조성됐으며 서울 등 대도시로부터 매우 가까와 판매망을 조직하기에 용이한 점 등, 유기농업을 실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유기농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깨달은 몇몇 분들에 의해 우리 고장에서 자리잡아 왔으며 현재는 정농회, 한솔생명공동체, 북한강 작목반(유기농업협회), 운길산 작목반 등의 단체들이 나뉘대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 대부분이 판로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다 많은 농가들이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지만 그들을 수용하고 지도할 변변한 지역 단체가 없는 형편이다.

유기농 농가들의 요구와 바램을 모아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도와주고 이를 토대로 우리 팔당상수원 지역을 보다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힘있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

는 단체의 출범이 필요하다.

유기농업의 대중화에 따른 품질저하와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팔당상수원지역 유기농업농가들 스스로 품질에 대한 보증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 문제를 해결할 신뢰성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2) 강령

- 우리는 농업이 인류생활의 근본임을 확신하고 자연과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바른농사(유기농업)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진한다.

- 우리는 팔당상수원 유역 농가들의 유기농업 실천을 통해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앞장선다.

- 우리는 조물주와 선조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환경운동을 숭고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농업을 비롯한 모든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각종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성장촉진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자연환경의 오염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반 자연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사용을 절제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사용이 필요 없는 바른 농법 개발에 힘쓴다.

- 우리는 농업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농업의 발전과 제반 농업, 농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협동과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농업, 농촌의 근본정신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바람직한 삶의 공동체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한다.

설립 취지문과 강령에 표현된 것처럼 팔당 유기농본부는 초기 자연 환경 보존, 농촌공동체 회복, 유기농업을 통한 자립 경제기반 확

립을 목표로 했다. 초기부터 유기농산물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하려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농조합은 2003년 36억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2004년 5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 구리, 하남, 마석, 덕소 등 중소도시의 소비자들과 생활 협동조합을 발족해 현재 1천여 명의 소비자 회원을 확보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팔당유기농본부는 2001년 소비자와 생산자 조직을 통합 팔당생명살림연대로 활동하다가 올해 초 생산자 중심의 영농조합인 팔당생명살림과 팔당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분리하면서 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을 협의체로 재편성했다.

지역운동과 환경운동, 공동체 회복운동, 교육운동 등은 사단법인이 담당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은 각각의 과제를 보다 전문화시켜 집중해 내기 위함이다.

팔당에는 매해 3-4천명의 소비자들이 견학을 다녀간다. 2000년부터 강연과 현장방문 중심의 소비자 견학 프로그램을 농촌 체험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공사업을 담당하는 두물머리식품(주)는 이미 창립 10년이 됐음에도 그동안 큰 성과를 이루지 못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조직을 재편하고 새롭게 자본금도 확보하면서 유기농산물 가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한국 농촌현실에서 팔당유기농본부 활동의 의미

1) 친환경농업에 대한 대중화 및 경제적 성과 입증

최근(1998년)까지도 한국에서는 대다수 농민들은 물론 농림부 정책당국자들까지 유기농업은 철학적, 신앙적 확신 있는 소수의 양심적인 실천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유기농업으로는 농가의 경제 자립도, 안정적인 식량 자급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팔당유기농본부가 유통회사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정부는 1998년 친환경농업을 한국 농업발전의 주요 과제로 삼고 농가들에게 진원 정책을 채택하고 육성법을 제정하기도 했다.(199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사실 팔당의 농가들은 전혀 IMF 사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꾸준한 소득 증가를 이뤄왔고 여타 직업에 종사하던 상당수 젊은 청년들이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2) 국가 환경시설에 대한 수혜자, 피해자 사이 공존사례 정착

독재정권을 겪으면서 한국에서는 댐,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시설 주변의 주민들은 농지를 수용 당하고 발전이 저해되는 등 일방적 피해를 당해왔다. 이런 이유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 와서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국가 공익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팔당은 수도권 상수원 댐으로 인해 30여 년 간 일방적 피해를 당해 오면서, 유기농업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주민들의 심정이 팔당호가 빨리 오염되기를 바라는 정도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깨달은 유기농업인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 수혜자인 서울시, 환경부 등과 팔당 지역민들 사이에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냈다. 즉 농가들은 유기농업으로 수질보호를 실천하고 수혜자들은 물 값을 내서 유기농가들의 생산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상호 보완하는 정책을 만들어 냈다. 또한 팔당농가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서울시민들이 적극 애용하고 농가들은 환경 감시단을 조직해 활동하는 등 공존공생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3) 자주적인 농민단체의 자립과 농촌공동체 회복 가능성

독재정권과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한국농촌은 피해 일로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자주적인 농민조직들이 경제자립을 이루며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성공한

사례를 발견키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팔당유기농본부의 사례는 농촌공동체의 회복가능성, 자주적인 농민조직의 긍정적 역할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4. 당면한 문제와 향후 과제

그 동안 팔당유기농본부는 농가들의 경제자립과 유기농업의 유통망 확보에 전력을 다해 왔다. 필요한 과정이긴 하였으나 조직원들에 대한 가입절차, 교육과정 등이 미진하면서 초기의 이상이 많이 훼손되고 구심 지도력의 약화, 조직원간에 심각한 의견대립, 결속력의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초기의 이념과 목표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고 향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키 위해 현재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창립을 주도했던 지도그룹의 의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팔당의 대부분 농민 회원들은 경제문제에만 지나친 관심을 보여 왔다. 유통의 성과로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을지라도 일은 여전히 힘들고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많은 회원들의 소회다.

팔당은 올해 초부터 '유기농업 운동에서 유기적 삶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팔당의 새로운 운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유기농업운동은 단지 농약, 화학비료 사용치 않고 농산물을 생산해 제값 받고 파는 경제운동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유기적으로 바뀌고 우리가 사는 농촌의 못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유기적 세상으로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의 표현이다. 농민, 농업운동 차원에서 농촌공동체 회복운동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해야 다음 단계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農